

文景公派譜(庚申譜)卷頭辭

族譜는 옛 中國에서 부터 始作된 것인데 처음에는 「帝系」라 하여 王室의 系統을 記錄하여 이것을 帝王의 年表라 하였고 個人의 族譜는 漢나라 때부터 始作되어 個人의 來歷과 祖上의 閱歷을 記錄 하므로써 宗系를 알 수 있게 하였다 南朝의 齊나라 賈希鏡代에 와서 中國全土 士族의 族譜를 總網羅하여 百帙七百卷에 達하는 巨書를 編纂해냈다 이것이 士族族譜의 始初로서 가장 正確한 系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族譜가 생겼을까? 新羅時代에는 없었고 高麗

中葉以後 부터였는데 亦是 王室의 系統을 記錄 한데서부터 始作 되었다

金寬毅의 「王代實錄」과 任景肅의 「璿源錄」이 그 嚆矢라고 하겠다 그

러나 오새와 같은 族譜는 아니고 單純한 宗牒 程度였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最古의 族譜는 文化柳氏의 嘉靖譜이다 嘉靖譜는 明나

라의 嘉靖四十一年 李朝의 明宗十七年(西紀一五六二)에 나왔다 이 嘉靖譜  
는 처음으로 体系的인 編纂을 하여 外孫까지도 仔細히 記錄되어 있다 한다  
이 族譜가 나오기 前에는 家牒이나 家乘程度 이었음 뿐이다 最近 7  
버트大<sup>1</sup> 와구니教授에 의하여 安東金氏 成化譜가 먼저(一四七六) 刊行  
되었다고 公開 되었으나 序文만 남아 있다고 한다

族譜가 流行 된것은 壬辰亂을 겪은 다음부터 일것인데 特히 肅宗 以後  
에서야 많은 族譜가 쏟아져 나왔다 어쨌든 族譜에對한 關心은 朋黨 派閥  
싸움이 치열해 지면서 부터 더욱 깊어갔다

族譜의 目的은 무엇이었던가 族譜가 없으면 常民으로 떨어져서 軍役을 치  
르는등 社會的인 差別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써 가면서 族譜에 한몫  
끼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오래 계속되어 通弊가 컸을때도 많았다  
그러나 同族으로서의 親睦을 達하는데 族譜가 必要하고 血統과 家系가



뜻뜻히 記錄되어 있어 훌륭한 歷史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여러代를 내려  
오면서 宗派가 갈리고 寸數가 멀어져 서로 모르게 될 때에도 그 友誼  
를 찾는 일은 族譜가 가장 빠르다 族譜가 있으므로 先祖의 墓所를 알게 되  
고 따라서 時享을 지내게 되어 一族이 한 자리에 뭉쳐 祖上을 追慕하며  
崇祖 保宗 親睦의 目的을 達成 할 수 있는 效果가 크다  
廣州李氏의 族譜는 (廣陵世譜) 李朝 明宗 (西紀一五四六—一五六七)에 東  
皋相公이 처음으로 著述한 것으로 짐작된다

文化柳氏 嘉靖譜 (李朝 明宗十七年 西紀一五六二) 刊行前後해서 編纂된 것으로

로 推測된다 漢陰相公이 著述한 庚戌譜 (光海二年 西紀一六一〇) 序文中에

「어린때에 우리 世系를 보니 全히 東皋相公의 著述이었도다 그러나 不幸  
하게도 壬辰倭寇兵禍를 當하여 國家書籍이 다 재가 되었으니 하물며 民家  
의 譜冊이 保存될理가 있으리요 내가 庚戌譜를 校正 하게되매 어느날 聞

韶李使君 士修(東臯親孫)가 보내온 譜冊一卷을 보니 全的으로 東臯相公이

著述한 譜書이며 또 蘇氏(中國宋時代人)의 譜를 模倣 하였다 實地 校

正코자 仔細히 보니 마음이 快樂하여 이로 能히 世業을 알게 되매 感慨無

量 하였고다……」等の 記述이 있었다 (이것 亦是 保存하지 못하였다)

庚戌譜(光海二年西紀一六〇年)를 爲始하여 甲辰譜(景宗四年西紀一七二四年

乙辰譜(正祖二十年西紀一七九六年) 癸酉譜(高宗十年西紀一八七三年) 己

未譜(西紀一九一九年)까지 五回發刊 되었다

以上 族譜의 內容을 살펴본즉 癸酉譜까지는 族譜 本精神에 違背됨이 없

이 깨끗하게 著述 되었으나(三·四人의 잘못된 收錄도 있지만은) 己未譜

에는 그렇게 많은點이 多少 있었다 그러나 八·一五 光復後(西紀一九五八

年)에 처음으로 發刊한 文景公派譜인 戊戌譜 內容을 살펴본즉 形容할 수

없이 不實이 많았다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東臬相公의 側室 幸州奇氏(墓는 東臬墓 右岡에 있다)를 吏曹參議 禮悅公의 側室로 收錄 한 것

(2) 天微公(必行)의 三子·四子·五子의 이름(名)과 있던 子孫을 다

없애고 系子로 만든 子의 生庭祖上의 이름으로 바꿔쳤다

(3) 無后한 분의 系子에 있어서 代數도 달지 않는 것을 架空人物로 補

充하여 虛僞의 代數를 꾸며 놓은 것

(4) 血統도 모르는 系子가 養家의 祖上을 몇대씩 없애 버리고 生庭의

祖上으로 바꿔친 것

(5) 他派(觀察公 克基派 爾瞻孫等)의 孫을 文景公 後孫으로 꾸며져

있어 他派의 惡評을 받고 있다

(6) 系子의 몇대孫이 몇몇대祖를 破養해 가는 것 等の 不實을 敢行 한

것이 五十餘件에 達하였다

文景公派譜(庚申譜) 著述의 目的은 宗族 同派間의 親睦團結을 圖謀 達

成하는데 基礎가 되면서 祖上님의 聖스러운 遺訓 遺德 遺蹟을 想起 崇慕

하므로 子孫 萬代의 進路開拓에 資源이 될것을 念及 謹고 文景公派譜를

發刊 하는데 主 目的을 두었으며 둘째로는 特別 이번에 發刊하는 派譜에

는 節操있는 淨化精神을 發揮하여 不實하고 虛偽의 事實을 收錄 하는것은

一切 排除 하였을 뿐 아니라 舊譜(特別 戊戌譜)에 잘못된 記錄 된것

까지도 果敢히 考訂하여 正誤하고 改訂한 文景公 派譜를 發刊하는데 힘을

기우렸다

庚申譜 發刊 進行에 있어서 第一 隘路點은 上述의 不實點을 排除 是正

하는것이었고 第二의 隘路點은 牛泉公派의 長子 다름 이었다 이 다름에

對해서는 兩竿의 平和的 解決을 懇求 하였으나 끝끝내 서로 讓步하지

않아 和解成立이 不能되고 또 正確한 考訂資料도 언지 못하여 不得已 癸



西譜（高宗十年西紀一八七三年）「卷之一、洪七 ◎廣州李氏族譜「卷之十六、夏二

、三十六」 ◎廣州李氏族譜「卷之十七、隸二、三」 收錄資料（다음과 같은）에

依하

『◎卷之一、洪七

「世佑」字仲彥 世宗己巳生 成宗乙未以司馬登文科歷玉堂東壁吏曹叅議都承

旨官止京畿道觀察使庚戌卒墓在末屹山朴訥齋祥撰碣文○貞夫人安東權氏父判官奎墓

附

「子滋」字樹德 世祖丙戌生 成宗甲寅以進士登文科燕山時以弘文館博士黜拜

咸昌縣監戊午禍作知禍及遂縱飲己未卒於官墓在末屹山朴訥齋祥撰碣文○配廣州安氏

父司諫彭命墓附

「子若水」字止原生員己卯舉賢良不第北門禍作率太學諸生爲疏頭乞貸靜菴諸賢被

拿械幸已流平海移禮山而終事載己卯錄○配尚州朴氏父士華○配全州李氏父益華

廣州李氏文景公派譜卷之二  
◎卷之十六、夏二、三十六

文景公曾孫若水派 此派當入於丙辰追錄而譜單晚到故書於丙辰追錄之後

「若水」七代見第 卷 字板 號牛泉墓在大興牛井洞後麓辛坐有碣 崇禎戊子

士林建祠墓下

「子斧」贈宗簿寺主簿墓在茂長托谷面南山里西麓砧橋上卯龍艮坐○配晉州姜氏

墓附

◎卷之十七、隸二、三

文景公曾孫若水子誠派

「若水」七代見第 卷 字板

「子誠」字士彬丁丑生庚辰終○配潘南朴氏父縣令聖泰墓高山南面燕谷卯坐雙墳

譜所明什七 西紀一九七九年十二月二十三日 執行部擴大幹部會議 開催計丑

牛泉公派 紛爭關係 審議計丑



「長次子」를 區別하지 아니하고 尙州朴氏의 子는 誠公의 子 全州李氏의 子

는 斧公으로 表示하고 登載順序는 癸酉譜 順位에 따라 登載하며 派의 表題

를 文景公曾孫 若水派、文景公曾孫 若水子 誠派로 登載할 것」으로

委員長 徽載 總務 鍾岱 校正委員長 敏載 考訂委員長 秉祚

財政委員長 鍾武 編輯委員長 容伯 編輯委員 容圭 監事 容善

灘叟派代表 鍾厚 樽岩派代表 喆來 養浩堂派代表 南來 牛泉齋派代表 王載

策誠派代表 鍾泰 牛泉齋派代表 鍾宅 德載 復載 記錄 析載 傍聽人

鍾喆 鍾烈 鍾敏

以上과 같이 參席하여 決定 하였나 (以上의 名單은 會議 開催當時의

譜所職位 表示임)

그러나 西紀一九八〇年一月二十二日二十時頃 委員長이 退勤한後 精書한 原

稿를 印刷하기 爲하여 全州에 移送하려고 包裝하는 자리에서 當時 譜所役

員으로 있던 某斗 牛泉公(斧字) 卒 某某等이 前記한 會議決定事項에 不服  
하고 亂動을 하므로 不得已 考訂委員長 秉祚가 「尙州朴氏의 子誠 全州李  
氏의 子斧」의 字를 지우므로써 事態가 收拾 되었으며 翌日 委員長이 全  
州에 가려고 서을驛에 나와서 必로소 事件의 顛末에 對한 經緯說明을 들었으나 어  
찌할 사이가 없어 그대로 原稿를 가지고 全州에 到着하여 委員長과 編輯  
委員長 容伯이 協議한 結果 「尙州朴氏有一男、全州李氏有一男」으로 合議되  
어 精書한 原稿를 訂正 하였으며 이어 玉載가 旅館으로 來訪 하였기에  
그 事實을 相議한 結果 亦是 贊成하여 確定 하였다

如上을 큰 眼目으로 살피 볼때 戊戌譜의 不實도 깨끗하게 拂拭하지 못  
하였고 牛泉公派 長子 다름도 完全히 解決해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庚申譜 全体에 있어서 不備한點이 적지 않을 것으로 生覺 되는바 이것은  
다 本人의 無能 無力과 執行部 幹部들의 協和 團結이 缺如된 所致라고



思料 됨에 따라 宗族 諸賢에게 謝過를 드린다

나아가 後日에 廣州李氏 文景公派譜를 發刊할 때에는 有能한 人士들의 協和團合으로 努力하여 族譜精神에 이르기까지 模範的인 文景公派譜가 誕生되기를 眞心으로 祈願하는 바이다

三·八線 障壁으로 疆土가 兩分되어 사람의 往來가 막힘으로써 北方의

宗人은 여기에 合譜하지 못하니 어찌 慨嘆할 일이 아니라 此後에 修譜者

는 반드시 地方에 散在한 宗人을 探索하여 빠짐없이 合譜하면 同根之情이

더욱더욱 敦睦의 義를 이룰것이다

끝으로 文景公派譜(庚申譜) 發刊에 있어서 功獻이 第一 큰분은 氏을鑄

鐵 鍾壽社長이다 왜냐하면 新築社屋 一部(서울 特別市龍山區南營洞四十四番地

所在 建坪約二十坪)를 無償으로 文景公派譜 發刊委員會의 事務室로 使用刊

해주어 派譜發刊에 근신 動脈的인 役割이 되었을뿐 아니라 恒常 親切多

情히게 協助 指導하여 주이 卽 物心兩面으로 惠澤을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景公派 宗族諸賢과 더불어 衷心으로 感謝를 드린다

다음으로 自初至終으로 眞心껏 熱誠을 다하여 各自가 擔當한 責任을  
完遂하므로써 有終의 美를 건운 考訂委員長 東祚翁 校正委員長 敏載 同副  
委員長 昇來翁 編輯委員長 容伯 그리고 經理會計 庶務 原稿精書等에 手苦  
를 아끼지 않고 盡心竭力한 總務 鍾岱 事務長 析載 復載 李昌奎 諸位와  
本譜의 印刷를 맡아 利害를 超越하여 盡力해 주신 三省印刷社 朴明錫社長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〇年(庚申)七月 日

前 서울農業大學長 農學博士 徽載 謹識



文景公(廣城君)派譜序

我東開國亡 與堯王 並立以來에 世無族譜故로 年代昭詳과 派分遠近을 其不  
可攷也과 臣民之私譜亡 宋歐陽氏蘇氏가 始初氏譜하니 程朱 兩夫子가 極論其  
義하시다 我東則至于羅麗之代하야도 惟以未遂이러니 李朝中葉에야 始盛行焉하  
다 代遠族昌하여 不爲廣收則派譜가 興焉하고 派分已允하여 以爲篤近則 家乘  
이 作焉하니니 大譜也 派譜也 家乘也가 其所以尊祖敦族은 一也라 惟我 廣  
陵世譜는 東皋忠正公이 初修하시 壬辰에 煨燼無傳後 十九年 庚戌之譜는 叅  
判公諱 士溫 贊成公諱 士修 漢陰相公諱 德馨 修譜 一卷하시고 景宗四年甲  
辰에 弘文館校理諱 承源氏가 重修 三卷하시고 正祖二十年丙辰에 大司諫諱  
尚度氏가 重修七卷하시고 高宗十年癸酉에 宣傳官諱 基讓 判書諱 宜翼 叅判  
諱 容學氏가 重修十七卷하시고 民國初 己未에 嘉義大夫 承載氏가 重修二十  
一卷하시니 吾之 大同譜는 凡五回而距今 六十有星霜에 子姓이 漸繁하고 散

在南北하여 或有漏譜故호 當此時하야 僉議하 齊發키늘 文景公以下 派譜 修整之議하 將歸一故호 任委 農學博士 徽載하야 業其卒하니 繼先收族 尊上親之義하 觀於此譜則 豈不無孝悌之心호 油然而生哉하 昭穆之次第하 派分之原委하 一開卷則 瞭然在目하니 日後庶幾大補而 不爲杞宋之無徵也歟인저

庚申年七月 日

後孫 昇來 謹序



庚戌譜序

漢原府院君李德馨

昔余幼時從曾大父所見廣陵世譜印以活字只錄子壻不及外孫私恨其甚畧及長究古人之宗法乃知此譜有深意蓋出東臯相公之指云壬辰兵禍國籍盡灰而況於家譜乎宗老李士溫氏習知吾東諸閥世系重纂內外譜甚備以要余校印而未果一日聞韶李使君士修氏寄示姓譜一本全述東臯相公之舊書且倣蘇氏譜之詳畧嚮之未及校者一見愜意信乎知要而能世業矣間有一二差漏處輒以所聞釐正仍序其顛末而還之噫吾遁村先祖斥忤逆眈逮禍遠避叅議先祖叩馬諫獻廟於昭悼之變直聲偉節古固無比焉後孫者苟忝其家聲則能無愧於此譜乎而遁村以後雖遠而一枝也本是同根不與之相睦者獨何心哉念祖先之情觀譜而油然而發則其亦有所感於此夫

옛날 내가 어렸을때 曾大父 居所에서 廣陵世譜를 보니 活字로 印刷되었

으나 다만 子와 女壻만 記錄하고 外孫까지는 미치지 아니하여 홀로 그  
너무 簡略함을 恨스럽게 여겼더니 長成하여서 古人的 宗法을 詳考해보고  
이 族譜의 길은 뜻 있음을 알았으니 대개 東臯相公의 指示에서 나온바  
라 하더라 壬辰兵禍에 國籍도 다 재가 되었거늘 하물며 家譜에 있어서  
라 宗老李士溫氏는 東國 여러 氏族의 世系를 익히 알아 거듭 内外譜를  
아주 仔細히 編纂하야 나에게 校印하기를 請하였으나 그러지를 못했었다  
어느날 聞韶(義城古號)李使君(守令의 雅稱)士修氏가 姓譜 한卷을 보내 왔으니  
穩全히 東臯相公의 舊書를 記述하고 또 蘇氏譜(宋나라 蘇老泉의 族譜)의 仔細  
함과 簡略함을 본 뜻이니 前日 미처 校印하지 못했던 것과 一見에 意  
思가 合致되어 있음을 알겠다 참으로 要領을 體得하였음이요 能히 世業  
이 될만 하도다 間或 한 두군데 틀리고 빠진곳이 있어 곧 들은 바대  
로 고치고 因하여 그 顛末을 敘述하여 보냈다 噫라(感慨無量의 表現) 우리



迺村先祖께서는 逆賊幸晩을 排斥하시다가 禍가 미쳐 멀리 避禍하셨으며  
 參議先祖께서는 昭悼之變(芳蕃芳碩의王子亂)에 獻廟(太宗)에게 叩馬極諫하셨으며  
 直聲과 偉節이 옛날에도 참으로 比할바 없으니 後孫된者 或 家聲을 더  
 렵힌다면 能히 이 族譜에 對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없을수 있을까 또  
 迺村以後로 代數는 비록 멀어져도 一枝이다 本是 同根으로 서로 和睦하  
 지 못한者 있다면 이 무슨 心思일까 祖先의 情을 생각하고 族譜를 보  
 면서 油然(盛하게 일어나는 모양)히 敦睦의 情이 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族譜에서 느끼마 있음일진저

## 甲辰譜序

通訓大夫弘文館校理承源

族弟判隸院夏源甫重修世譜校勘訖將送于其叔父北伯公莅所俾付剞劂  
 乃要余而謂之曰是役也兄之先大父蓋嘗經始而就緒者兄烏得無一言於  
 斯乎曰諾是吾志也安敢以不文辭謹按舊刊同姓譜一冊卽吾東皋先祖之

所撰定也至壬辰軼於兵燹其後高祖考贊成公續有編次漢陰相國序之而生員公以上四代名諱始出於諺傳雜記未有明文之可據故錄在卷端仍附其各派子孫以別本譜今行庚戌譜是也溯庚戌殆百有餘年世代寢遠子姓漸繁譜牒修改以時則可徃在辛未先王考因諸宗所委重收各派單目撫採攷証靡有闕漏遍加旁註添錄外孫程例不紊詳略得意遂分爲上中下三卷草本既定王考下世其書歸于族叔父參判公且待時而鋟行未幾參判公又捐館出開箱篋亦有年矣迺者北伯公以參判公之弟出按藩臬旣可以鳩工辦事而判決君以參判公之胤又明敏精勤實幹校讎於是據印草兩本頗有增刪去取至若別譜子孫之不錄以其自貳也四代名諱之仍載所當存謹也斥合譜之說而辭理明正作辨疑之書而援据審悉不數月而編勒卒完判決君之力於是爲多而其亦吾宗之大幸也歟於虔語云根深則枝茂源遠則流長此理之常耳惟我李氏始顯於麗李遠 本朝極盛於 光廟成廟之世施



而及乎 明宣之際名公碩輔蔚然輩出文章德業焜耀簡策至今子孫千億  
科甲連倫此莫非祖先積累之厚有以致之也然則觀是譜者可不思所以紹  
闡餘休毋墜其家聲耶此則吾與諸宗人之所當共勉而抑余別有所憾於心  
者記余昔侍王考替執筆札於斯役尚了了如昨日事而轉頭之頃已過三紀  
矣不勝追撫愴咽茲敘數語並以志私感云爾

族弟判隸院夏源甫

世譜를

重修하야

校正을

마치고

將次

그

叔父北伯威

鏡監司公菴所로 보내어

印刷에

부치고저

할제

나를

請하야

일러

가르되

이 일은兄의 先大父께서

일지기

經營하기

始作하였던

바이거늘

兄이

어찌 이 世譜에

一言이

있을수

있겠오

하니

내

가르되

좋다

그것은

내 本意이거니

어찌

글을

못한다고

辭避하리오

하였다

삼가

按察하건대

舊刊 同姓譜

한卷은

곧

우리

東皋先祖께서

撰定하신바이나

壬辰에

이르

러 兵火에

잃어버린바

되었고

그後

高祖考

贊成公께서

이어

編次하시고

漢陰相公이 序하였는바 生員公以上 四代名諱가 諺傳雜記에서 처음 나왔고  
明文의 可據할만한것이 없는故로 卷末에 記錄하고 그 各派子孫도 附記하  
여 本譜와 區別하였으니 至今 行해지고 있는 庚戌譜가 이것이다 거슬러  
庚戌까지는 거의 百餘年이 되어 世代는 멀어지고 子孫은 繁盛하니 譜牒  
의 改修가 時期로 보아서는 合當하다 하겠다 지난 辛未年에 先王考께서  
諸宗의 倣重을 받아 各派單目을 收合하여 添削考證하여 闕漏함이 없었고  
두루 旁註를 달고 外孫까지 收錄하였으니 例規는 紊亂스럽지 않고 詳略  
도 適當하여 드디어 上中下三卷으로 나누었으나 草本이 定해지지 王考께  
서 下世하시고 그 冊은 族叔父參判公에게 돌려져 時機를 보아 印出하려  
하였던바 未幾에 參判公께서 또 別世하시니 箱篋속에 넣어둔지 또 몇년  
이지났다 얼마전에 北伯公이 參判公의 弟로 邊境을 觀察하게 되매 鳩  
工辦事(工匠을 모으고 일을處理함)할만하고 判決君은 參判公의 아들로 明敏精勤



하여 實際 校正所任을 擔當하게 되었으니 이에 印草(兩本) (印은 庚戌譜草는 重  
修할 草本)에 依據하여 자못 增刪과 去取가 있었다 別譜子孫을 記錄치 않  
음에 있어서는 스스로 區分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오 四代名諱를 그대로  
登載하였음은 마땅히 慎重을 期해야 하기 때문이다 合譜之說을 排斥함에  
있어서 辭意가 明正하고 辨疑之書를 만듬에 있어서 援據가 詳悉하게 하  
면서 몇달이 못되어 編纂과 刻板을 마치니 判決君의 힘이 이토록 많았  
으며 이는 또한 肅宗의 大幸한 일 일 것이다 於禔(嗚呼와 같은)라 古語에  
이르기를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盛하고 源泉이 멀면 흐름이 길다 하였  
으니 理致의 惝惝한 바이로다 우리 李氏는 麗季에 顯達하기 始作하여 本  
朝에 이르러서는 光廟 成廟代에 極盛하였고 明宗 宣祖때에 이르기까지  
名公과 碩輔가 蔚然輩出하여 文章과 德業이 歷史에 빛나고 子孫은 千億  
이오 科甲이 連이어오니 이는 祖先의 쌓이고 쌓인 厚蔭所致가 아닐수

없은즉 이 族譜를 보는者 祖先의 餘休를 이어서 闡揚하고 家聲을 떨추  
 지 않을것을 생각치 않을수 있을까 이는 나와 宗人이 마땅히 함께 힘  
 쓸 일이요 나로서는 따르히 마음에 서글픈바가 있으니 내가 전에 祖父  
 님을 모시고 이 일에 書札을 代筆하여 드리든 일이 아직도 어찌일 처  
 럼 歷歷하건만 깜박할 사이에 이미 三紀(一紀는十二年)가 지났으니 지난일을  
 생각하고 슬피 울먹이지 않을수 없어 이에 몇마디 敘述하여 私感 또한  
 아울러 적는 바이다

丙辰譜序

通訓大夫行議政府檢詳文 臣 兼宣傳官 基讓

譜所以合族也然合族之法源於祭祭自祭禰祭祖至於祭始祖而繼禰繼祖  
 繼始祖之宗立焉宗立而自祖禰至始祖之族合焉春秋以後祭禮缺而宗法  
 隨壞族不復合矣朱子憂之至以爲大宗法旣立不得須立小宗法近世之立  
 主祭四代蓋是也然四代之外猶無統屬及譜法出而始祖以下之族始得以



合故曰今之譜法古之祭義也夫祭始祖已至矣而聖人又禘焉禘者祭始祖之所自出也夫禮重始祖然始祖者特謂始基之祖非謂生民之始也如國君始受封卿大夫始受爵或自列國始移居凡有功德於後者及別於他族者皆禰始祖或別子是特別之耳然亦必有所自出既有矣斯祭之既祭矣所祭者以下之族又可得以合之故周既祖稷殷既祖契而又必禘嚳夏既祖顓頊而又必禘黃帝其義甚精且廣矣我李白萬曆庚戌譜已以 遁村公爲始祖蓋以始顯自 遁村也既又以其考 生員公特書卷首復取 生員公以上四代名諱及 生員公他諸子及四代後裔錄之卷末爲別譜蓋以 遁村公亦有所自出也此正古人禘祫之義而尊祖合族可謂兩得其宜至 景廟甲辰諸議忽岐四代後裔三家者遂分爲乙巳譜是固以別譜爲疏之也然別之者只欲明 遁村之爲別子而已故 遁村之親兄弟猶且別之何有於疏之乎而特未之察寧不惜哉今承旨尚度氏又謀重刊義例之嚴引系之詳參用庚

申間出己意工簡而記備蓋其用心之苦取舍之精要歸於尊祖合族不失前人立譜之義儘可敬也向吾譜凡三成其始也尚度氏先祖東臯公胤之而基讓之先祖漢陰公及見而傳之其次爲庚譜而尚度氏六世祖寺正公修之漢陰公又序之今尚度氏之有是役基讓獨可以己乎遂謹序之

族譜란 氏族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譜하는 法은 祭祀에서 비롯하나

나 父에 祭지내고 祖에 祭지내며 始祖에 祭를 지냄에 이르러서야 父로

이르고 祖로 이어서 始祖까지 이온 宗法이 서는 것이오 宗法이 서야

父祖로 부터 始祖까지의 族이 합해지는 것이다 春秋(中國周末戰國時代直前)

以後에 祭禮가 없어지고 宗法이 따라 무너지니 氏族이 다시는 합쳐지지

못하였다 朱子께서 걱정하사 大宗法이 세워지면 小宗法은 세우지 못하도

록 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近世의 四代를 祭祀지내는 法을 세움이 이것

이다 그러나 四代以上은 오히려 統屬이 없다가 譜法이 나옴으로 해서



始祖以下의 宗族이 비로소 합치게 되었는 故로 오늘날의 譜法은 옛날의  
 祭義라 말 할수 있다. 무릇 始祖에 祭지냄도 이미 至極한 精誠이건만 聖  
 人이 또 禘(제)를 지냈으니 禘란것은 始祖의 所自出(즉 아버지)을 祭祀지내는  
 것이다. 때쳐로 禮에는 始祖를 重히 여기나 始祖란 것은 基礎를 세운  
 祖上을 指稱함으로 生民의 始祖를 말함이 아니니 國君으로 처음 封함을  
 받은 것이나 卿大夫로서 처음 爵을 받음과 같은 것이다. 或 列國에서  
 移居하여 後世에 까지 功德이 있는者 및 他族과 有別한者를 다 始祖  
 或은 別子라 하여 사당에 모시나 이는 特別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아버지인 것을 지니 祭祀지낼것이요 祭祀를 지낸  
 다면 祭祀받는者 以下의 氏族은 합치지게 되는 故로 周나라는 이미 稷  
 으로 始祖를 삼고 殷나라는 契로 始祖를 삼았으되 또 반드시 嚳(고)에  
 禘지냈으며 夏나라는 이미 顓頊(전욱)으로 始祖를 삼았으나 반드시 黃帝에

稀지냈으니 그 뜻이甚히精하고 넓다 우리 李氏는 萬曆庚戌譜에서 이  
미 遁村公으로 始祖를 삼았으니 遁村으로 부터 처음으로 顯達하였기 때  
문이며 또 그 아버지 生員公을 卷首에 特書하고 生員公 以上 四代名諱  
와 生員公의 여러 他子들과 四代後裔들을 卷末에 記錄하여 別譜로 하였  
으니 遁村公 또한 所自出이 있으므로 써오 이는 바로 古人之 稀裕(翺)하  
는 뜻이며 尊祖와 合族에 可謂 多 得宜하였다 할것이다 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議論이 分裂되어 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乙巳譜를  
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別譜로써 疏遠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別이  
란 것은 다만 遁村의 別子임을 밝히고저 하였을 따름인故로 遁村의 親  
兄弟들 까지도 오히려 特別히 여겼던바이니 어찌 疏遠해질것 까지야 있  
었으리요만 이 點을 特別히 살피지 못함인즉 어찌 哀惜하지 않으리요 이  
제 承旨 尙度氏가 다시 重刊을 圖謀할제 義例의 嚴함이나 引系의 仔細



함은 庚申譜規를 參用하고 間或 自己意見을 넣어 일은 簡便하면서도 記  
 錄은 周備하였으니 그 用心의 과로움이나 取捨의 精함이 要는 尊祖合族  
 에 歸結되매 前人들의 譜規세운 本義를 잃지 않았음이니 참으로 可敬할  
 일이다 지난날 우리 族譜는 모두 세번 이루어졌으니 그 처음은 尙度氏  
 先祖 東泉公께서 草創하여 基讓先祖 漢陰公이 보고 傳하였고 그 다음은  
 庚戌譜로서 尙度氏六世祖 寺正公께서 修譜하여 漢陰公이 또 序하였으니  
 이제 尙度氏의 이번 일에 基讓(즉 본스)만이 可히 그만들수 있을까 그래서  
 삼가 序하느라

## 己未譜序

嘉義大夫宮內府特進官承載

昔予弱冠先考序癸酉譜手執使役於筆硯之間了了如昨而不肖無狀又當  
 是役撫古之私不覺嗚悵而轉眄之頃已逾四十餘星霜矣世代變遷子孫繁  
 衍改修前譜固其時也門內叅判客觀氏經營屢載積費心力事將就緒以病

昏託于不佞兩易星霜庚甲丙癸之業復新甚大幸然此豈徒然觀察秉承氏  
以淹博之學加精詳之校竭殫心思且其冷手殘枰主財主務能舉其職如起  
空樓秘書丞鼎來氏之力爲尤多皆可書也已嗚呼是譜也與疎宗合同者親  
也與古規不同者時也凡爲我 生員公暨 遁村先生之所自出者勉思所  
以尊祖保宗之義隨其時親其親不在譜而在予人焉此又不可不知也於是  
予書

옛날 내가 젊었을때 先考께서 癸酉譜에 序하실제 내 손주 筆硯間에서

助役하던 일이 또렷 또렷 어찌일 갈선만 不肖가 無狀(形便없음)으로 또

이 일을 當하게 되니 옛날을 더듬는 私情에서 을먹임을 깨닫지 못하겠

으니 눈 감박할 사이에 이미 四十餘年이 지난 것이다 世代는 變遷하고

子孫은 繁昌하니 前譜를 改修함에 꼭 알맞는 時期이다 門內 叅判客觀氏

가 여러 해를 經營하면서 心力을 다하여 일이 다 맺어지려 할제 病昏



으로서 不佞(영리하지 못함 주自己를 나추워 말할 때 씀)에게 말기니 두번 星霜이 바  
 께어(三年이지남) 庚戌甲辰 丙辰癸酉의 事業이 다시 새로워지니 甚히 大幸함이  
 로다 그러나 이 어찌 저절로 되는 일이라도 觀察秉承氏가 淹博한 學識  
 으로 精詳한 校正을 加하기에 心力을 다 하였으며 또 아끼고 節約하는  
 솜씨로 財務를 보기도 하고 總務도 맡아 하면서 能히 所任을 다하여  
 空中樓閣을 이르기듯한 것은 秘書丞鼎來氏의 힘이 더욱 많았으니 다 記  
 錄해 들만 하다 嗚呼라 이번 族譜는 疏遠한 宗族과도 合同한 것은 親  
 을 로로 함이오 古規와 같지 않음은 時宜에 따르기 때문이었다 무릇  
 우리 生員公 및 遁村先生으로 부터 나온者(子孫된者) 집새 尊祖 保宗의  
 意義를 생각할 일이고 그때 그때 親親함이 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에 있는즉 이것 또한 알지 못하면 아니 될것이다 이에서 序文으로 書  
 하 노라

廣州李氏文景公派譜卷之一

上編

李唐

高麗生員 朝鮮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與池勝覽京畿道廣州人物編曰李唐本州吏登國子生員謹飭有賢行五子俱登文科○洪武戊申（一三六八）避賊咄禍隨子元齡南適寄居于慶尚道永川崔司諫元道公家已酉卒崔公備殯殮一如其親使焚于其母墳下即永川郡南羅峴子坐原是也每祭時及有官子孫省掃時必並享崔公母夫人李氏墓○萬曆間有義城宗人犯焚者宗中齊議掘去其後崔氏後孫犯焚者再而隨即掘去永為定式西家後孫皆不得繼焚○宜祖庚午（一五七〇）七代孫宜慶為清道郡守立表石撰陰記置位田基戶建僧舍為守護池○顯宗己酉（一六八九）外後孫沈梓為本道觀察使以庚午碑歲久殘缺改堅新石十一代孫右尹元禎撰陰記○英宗丙辰（一七三六）又改堅十二代孫判尹宜晚撰陰記

配仁華李氏

朝鮮贈貞夫人墓在廣州而失其處 英宗甲戌（一七五四）後孫昌夏龍翰尋得於廣州古邑驚洞文肅公之剛星州牧使之柔西墓之閒丑坐改堅封築立表石十大代孫正言基德撰陰記十二代孫承旨光運書○五子第一仁齡改名逢登進士科官慶先庫使○第二元齡改名集見下○第三希齡登拾舉科官知郡事○第四自齡登十韻科○第五天齡改名省登補賢科

一代

集

生員公第二子字浩然號通村元泰定四年高麗忠肅王十四年丁卯（一三二七）生忠穆王三年丁亥（一三四七）文科以學問志節鳴于世圖隱牧隱陶隱諸賢無不敬重恭愍王戊申（一三六八）許辛咄禍將不測竊負父逃竄于同年永川崔司諫元道公家已酉遭父憂焚于本郡羅峴辛亥（一三七〇）咄誅始還松京居龍首山下玄化里初名元齡字成老號墨巖子至是改名與字通村為號官奉順大夫判典校寺事不仕又退居驪州川寧縣洪武二十年丁卯（一三八七）卒 朝鮮贈左贊成有詩稿二卷行于世 顯宗朝士林建書院于廣州巖寺江上 肅宗丁丑（一六九七）賜額龜巖墓在廣州細村面大院里卯坐舊有